

대화의 십계명

종교간, 이념간 대화의 기본 법칙

레너드 스워드러

DIALOGUE@TEMPLE.EDU

이것은 ‘십층대화’라는 용어가 고안되기 전에 쓰여진 십계명의 고전적 버전이다. 또한, 이 버전은 ‘머리의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손, 마음, 신령의 대화도 있다.) “십층대화/비판적 사고/경쟁적 협동: 존재와 행동을 위한 가장 진정한 인간방식) 에큐메니컬 연구 저널, 47,2(2012, 봄) 143-151. 네 가지 기본 규칙의 첫 번째 버전은 에큐메니컬스터디 저널 15,3(1978 여름) pp.413 ‘종교간 대화에 대한 기본 규칙’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에큐 메니컬 스터디 저널 20,1(1983 겨울):1~4; “대화의 십계명: 종교간 대화를 위한 기본규칙”으로 확장되었다. 1984년부터 “대화 십계명: 종교간, 이념간 대화의 기본규칙”이라는 제목을 썼다. 지금까지 9개 이상의 언어로 39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상식적 가이드라인은 연상기억 교육학적인 이유로 “대화 십계명”이라고 명명되었다. : 적어도 유대교인, 기독교인, 무슬림은 인지할 것이고 어렵지 않게 “십계명”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낼 것이다. 게다가 대화십계명의 두운은 기억을 도울 것이다.

대화란 공통의 주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간의 회화이다. 대화의 제일 목적은 모든 참석자가 서로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대화에 대한 바로 이 정의가 대화의 첫 계명을 구현시켰다.

과거에 종교-이념계에서,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 위해 함께 모였었다. 예를 들어, 개신교간에 상대를 이기려하거나 좀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대하기 위해 배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혹은, 서로 협상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 과거에는 대립구조였었다. 때론 더 대놓고 격렬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미묘하게, 그러나 언제나 상대를 이기겠다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는 논쟁이 아니다. 대화에서 각 파트너는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서 최대한 열린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경청해야 한다. 그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포함한다. 어떤 부분에서건 우리는 상대의 입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만약 우리가 통합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하고 그 변화가 꺾여올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특별한 종류에 대화 즉 종교간, 이념간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종교/이념적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보다는, 대화당사자가 종교/이념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인 개인으로 대화에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크리스찬이나 마르크시스트가 아니라면, 나는 크리스찬-막시즘 대화에 “파트너”자격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참관해서 질문을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는데 말이다.

종교간, 이념간 대화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임에 분명하다. 과거에 이를 실행하기는커녕 생각해보지조차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것에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래는 종교간, 이념간 대화의 몇 가지 기본 규칙 혹은 “계명”으로, 대화가 실제 이뤄질 때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규칙들은 하늘에서 온 이론적인 규칙이나 계명이 아니고 힘든 체험을 통해 체득한 것들이다.

제1계명: 대화의 제 일 목적은 배우는 것이다. 즉, 인지와 현실 이해와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최소한도로, 나의 대화 파트너가 “저것”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에 비례해 그녀를 향한 나의 태도를 변화 시킨다; 그리고 나의 태도의 변화는 내 안의 의미심장한 변화이다. 우리는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니, 토론처럼 상대의 변화를 강압하기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토론 시 필요한 빈도와 사나움에 반비례하여 실현된다. 그와 반면, 대화에서 각 파트너는 배우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오기 때문에 서로의 파트너도 사실 변화한다. 그러므로 논쟁의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도, 대화에 의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제 2 계명: 각 종교나 이념 공동체 안에서와 종교나 이념공동체 간에 이뤄지는 종교간, 이념간 대화는 반드시 양방 프로젝트여야 한다. 종교간 대화의 “공동의”본질 때문에, 또 대화의 제 1목표가 각 파트너가 배우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참여자는 종교간 대화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신앙이 다른 파트너와 만이 아니라-예를 들어, 루터교와 영국성공회-신앙

이 같은 동료 루터교인과의 이워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만 전체 공동체가 결국은 배우고 변화하고 예민한 통찰력을 실현화 하는 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제 3계명: 각 참여자는 반드시 완전한 정직함과 진지함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크고 작은 전통의 물결이 움직일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지, 또 필요하다면, 상대가 자기문화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전 준비가 없이 대화란 성립되지 않는다.

정 반대로-각 참여자는 상대도 유사한 완전한 정직함과 진지함이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한다. 진심없이 대화가 이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대의 진지함을 전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해, 신뢰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

제 4계명: 종교간, 이념간 대화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상과 상대의 관행을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보다 우리의 이상을 상대의 이상과, 우리의 관행을 상대의 관행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미망인을 산채로 불사르던 힌두교의 관행과 과거 기독교의 마녀화형식과 아우토다페를 비교해야 한다.

제5계명: 각 참여자는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대교인만인 유대인의 의미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그 외 종교인들은 밖에서 보이는 것 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대화라는 것이 다이내믹한 매체이기 때문에, 각 참가자는 배워가면서, 변화할 것이고, 그럼으로 계속해서 깊어지고 확장되며 유대인으로서 내렸던 스스로의 정의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료 유대교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유의하면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각 대화의 상대는 자신의 전통의 정통 구성원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그 반대로, 해석된 사람은 반드시 해석 안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종교간 대화의 사도” 라이문도 파니카가 종종 언급하는 종교간 해석학의 황금률이다. 이해를 위해, 각 종교간 참석자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의 주장하는 바를 뜻한다고 말하려고 할 것이다; 상대는 그 말 안에서 참석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신학”의 대변인인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라면 그런 표현은 대화에 개입되지 않은 비판적인 관찰자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덧붙일 것이다.

제6계명: 각 참석자들은 의견불일치지점에 관한 확고부동한 추측 없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

그보다, 각 참석자들은 열린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최대한 대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분명히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는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정확히 말해 동의할 수 없는 진짜 지점이 있는데 대부분은 미리부터 잘못 추측한 불일치점과는 다른 것으로 판명된다.

제7계명: 2차 바티칸 의회(1962-65)에서 발표된 바, “파 콤 파리(par cum pari)” 대화는 양자가 다 배우려 온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 양자는 반드시 서로에게 배우려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만약 무슬림이 힌두교인을 열등하게 보거나 힌두교인이 무슬림을 열등하게 본다면 대화는 이뤄질 수 없다. 만일 무슬림과 힌두교인간에 진정한 종교간 이념간 대화가 이뤄질 것 같으면 양자는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주된 목적으로 나와야지만 동등한 “par cum pari”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규칙은 또한 일방적인 대화란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시작된 유대인-기독교인간 토론은 종교간 대화에 서막에 불과했다. 당연히 그 유대인들은 이 교류자리에 오직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려고만 나왔다. 기독교인들은 배우고자 나왔었지만. 그러나 만일 기독교와 유대교간의 진정한 종교간 대화가 이뤄질 것 같으면 유대인 또한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로 나와야 하며 그럴 때에야 비로소 동등한 파 콤 파리가 될 것이다.

제8계명: 대화는 상호 신용을 바탕으로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먼저 공통점을 가장 잘 가져다 줄만한 주제들부터 접근하여 인간적인 신뢰를 형성하라. 종교간, 이념간 대화는 반드시 “공동체적”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참가자들은 특정한 종교나 이념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도교인들과 같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대화들은 공동체가 아닌 개개인이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 간의 대화는 오직 인간적 신임이라는 바탕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걸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오히려 공통점을 가져다 줄만한 것들로 처음에 접근하여 인간적인 신용을 쌓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와 같은 인간적인 믿음이 깊어지고 확장되어가면서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다뤄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배우는 과정과 함께 우리는 무지함에서 깨달음으로 가듯이 대화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문제들-즉, 우리의 상호간의 무지가 수세기간의 적대관계로 나타난 사실을 본바, 이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공통된 점들로부터 불일치점으로 나아갈 수 있

게 된다.

제9계명: 종교간, 이념간 대화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적어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종교나 이념적 전통에 대해 최소한도로 자기 비판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자기 비판의 부재는 이미 자신의 전통이 모든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태도는 대화를 불필요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불가능하게까지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배우기 위해 대화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전통이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거나 다 올바른 정답만 있을 수는 분명코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종교간 이념간 대화에서 우리는 각자의 종교나 이념적 전통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확신도 건장한 자기 비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자기비판이 없이는 대화도 없고-사실, 온전할 수도 없다.

제10계명: 각 참석자는 결국 반드시 상대의 종교나 이념을 내부적으로 경험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나 이념은 단지 머리일 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며 전체의 개인과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존 던은 여기서 다른 종교나 사상적 경험으로 “넘어가”서 깨달음과 넓어지고 깊어진 이해를 갖고 온다고 말한다.(존 s 던, 모든 세상의 길(뉴욕, 맥밀런, 1972)). 우리 자신의 종교의 온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는 상대의 종교/이념의 상징과 문화적 장치들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힘을 경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상대의 종교나 이념의 좋은 면을 적어도 조금은 경험한 후, 더욱 풍부해지고 확장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종교간, 이념간 대화는 네 영역에서 운영된다-“머리, 손, 마음, 신령함의 대화”: 실용적인(손의 대화)에서는 인류를 돕는 일에 협력할 수 있고; 정신적인(마음의 대화)에서는 상대의 종교나 이념 내부에서부터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인지적인(머리의 대화)에서 우리는 깨달음과 진리를 찾고, 네 번째 통합적 영역인(신령함의 대화)가 있다.

종교간, 이념간 대화는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다(더 자세한 7단계는 다음 링크참조 <http://institute.jesdialogue.org/fileadmin/DI/SEVEN%20STAGES%20W%20PHOTOS.pdf>) 첫 단계에서 우리는 상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지우고 우리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 우리는 상대의 전통에서 가치를 식별하고 우리전통에 활용해보려고 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불교-기독교간 대화에서 기독교인은 명상하는 전통에서 더 큰 감동을 배우고 불교인은 예언적이고, 사회정의적인 전통에 더 큰 감동을 배울 수 있다. 두 가치

모두 전통적으로 강하게, 배타적이지는 않더라도, 다른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대화에 매우 진지하고, 끈기 있고, 민감하다면 우리는 때때로 3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실체와 의미와 진리와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탐험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미지의 실체의 차원과 대면하게 되는데 오직 대화 안에서 만들어진 질문과 통찰력과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 인내를 가지고 임한 대화는 새로운 "계시", 더 나아가 실체의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바탕위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1단계와 2,3단계에서 급작스럽게 다른 점이 있다. 후자에서 우리는 단순히 또 다른 "진리"나 가치를 상대의 전통으로부터 추가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자신의 종교/이념적 자기이해 안에 동화시키면서, 우리의 자가 이해를 균형잡히게 변형시킬 것이다. 우리의 대화 상대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자신의 전통안에 있는 깊은 가치의 요소들을 진정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상대의 전통도 자기 변형하는 이익과 동화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각자의 편, 각각의 상대가 자신의 종교/이념적 전통의 핵심과 참으로 진실한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온전함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핵심은 대화의 영향 하에 다르게 인지 및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대화가 온전히 열린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예를 들어, 유대인은 훨씬 더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기독교인은 훨씬 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유대교나 기독교가 다른 전통에 뭔가 깊은 가치를 찾아서 수용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 덕분에이다. 여기에는 "싱크리티즘"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왜냐면 경멸적 의미에서 싱크리티즘은 다른 종교의 다양한 요소를 종교들의 온전함은 개의치 않고 마구잡이로 뒤섞인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진정한 대화의 경우와는 다르다.